

시사적 시야 확보하는 우리 책 함께 읽기

글_ 임영환(서울 우신고 국어교사)



기존 시사 논술의 문제점

학생들의 시사 관련 논술을 지도해 보면 사회 현상에 대한 단순한 현상 분석, 확실적인 의미 부여, 또는 주관적인 의미부여 등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시사 논술 관련 서적들이 짧은 호흡의 신문 기사 위주이거나 고전 요약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짧은 호흡의 파편화된 글들은 얇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천편일률적인 고만고만한 글쓰기가 될 수밖에 없다. 긴 호흡의 한편의 책을 읽고 생기는 사고의 깊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신문 기사나 요약본 같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사고의 깊이나 통찰력이라는 것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간 같은 주제, 동일한 저자와 정신적 대화를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고전 읽기를 통한 사고력 훈련은 비현실적이다. 가령 사회 관련한 고전들인 로크의 《시민 정부론》, 루소의 《사회 계약론》 등의 고전을 읽어 낼 수 있는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또한 번역상의 문제, 그리고 시간상의 문제 등으로, 읽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의 독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짧은 글 읽기의 문제와 고전 읽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책 선택의 기준-학생들의 눈높이와 상황, 그리고 책의 깊이

먼저 학생들의 눈높이와 고등학생들의 빡빡한 일상을 고려하고 그러면서도 사회 현상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읽어 내는 작가의 통찰이 담긴 책이어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최근에 출판되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다룬 책이 좋다. 고전이 잘 와 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시공간의 차이,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들을 고려, 그 동안의 학생들과 독서 토론이나 독서 지도를 통해 효과나 반응면에서 괜찮았던 몇 권의 책을 뽑아 보았다.

이 책들은 고전보다는 쉽게 읽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무협지나 판타지류처럼 술술 읽히는 책들은 아니다. 적어도

논술을 넘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정신을 가다듬고 저자와 날카로운 대화를 펼치겠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효과가 있다. 또한 사회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논술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같이 병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책을 읽기 전에 소목차를 먼저 읽어본 후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먼저 적어보는 것이다. 가령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의 첫 번째 목차에선 '개성과 유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때 나는 개성과 유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다. 둘째는 읽은 후 논제를 잡아보는 것이다. 읽은 부분에서 특정한 쟁점을 찾아내 자신의 논거를 첨가한 후 주장을 펼쳐보면 그것 자체가 논술형 글쓰기가 된다. 셋째는 각 부분을 읽고 관심이 가는 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특히 관심이 가는 주제에 대해선 '과연 그럴까?' '왜 그럴까?'란 질문을 던져 가며 800자에서 1,000자 정도의 간단한 논술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 넷째는 독서 후 친구들과 논제를 갖고 토론을 해보는 것이다. 가령 홍세화 씨의 책 제 1부의 '개성과 유행' 부분을 읽고 "저건 유행일까 개성일까?"를 따져보거나 '개인주의자와 민족주의자'로 편을 갈라 찬반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사회학적 단어들을 적어두었다가 인터넷을 통해 이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책 살펴보기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소개하는 홍세화와 박노자의 책들은 시사 논술의 교재로 도움이 될만한 힘이 있다. 과거 나온 사회관련 서적들이 관념적 경향이 강했다면 이들의 책은 프랑스와 노르웨이라는 구체적인 나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풀어냈다. 구체적인 만큼 신랄함도 느껴진다. 그렇다고 이런 책을 보면서 단순히 저자의 입장을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자와 대화를 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생각을 풀어내는 논리력을 배우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란 무엇인가? 일방성이 아

니고 상호성이다. 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선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저자가 피상적으로 알고, 쉽게 재단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 반론을 제기해 보면서 논술에 필요한 논리와 자신의 사회적 안목을 키워 가면 된다.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문제들

- p49 사회 발전에 있어 민족모델과 개인모델 중 어느 쪽이 우리나라에 더 맞는지 한쪽 견해를 정한 다음 친구와 찬반양론 토론을 해보자. (혹은 민족주의자vs개인주의자, 집단의 단결력vs창조적 개성 중 어느쪽이 더 중요한가?)
- p84 프랑스 미술 교사의 말을 통해 '똑같이 그리기, 잘 그리기'가 아니라 '창조적 개성'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프랑스 미술 교육이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자.
- p141 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세계 에너지의 80퍼센트를 소비하는 현상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보고 저자와 비교해 보자.
- p 216 영어 공용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고 저자의 주장과 비교해 보자.
- p 236 프랑스의 퐁레랑스의 정신에 대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우리 민족의 외유내강의 정신, 중용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자.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문제들

- p18 노르웨이 버스 운전자와 한국의 버스 운전자의 태도의 차이를 '자본 중심 사회'와 '노동, 소비자 중심 사회'의 차이로 풀이하는 저자의 의견에 대해 논해보자.
- p38 노르웨이에서는 영어가 사교육이나 입시에 반영이 안 됨에도 평균적 영어 실력이 한국보다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적어보자.
- p46 베를린이 지적한 '과시적 소비'에 대해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도덕성'과 비교하며 한국 사회는 어느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자.
- p65 노르웨이의 신문시장은 이념과 사상 차원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의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 p 96 저자는 박제가 같은 북학파를 중심부 지향주의로 파악하여 비판했다. 이를 당시 북학파의 입장에서 재반론해보자. 또한 북학파가 비판했던 당시의 문벌귀족의 명문론, 형식주의, 소중화주의, 비효율성, 반민중성 등을 참고해 보자.

그 외 읽어볼 만한 사회관련 서적들

《청소년을 위한 정치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정치 서적이다. '예산'은 무엇이고, '국채'는 또 무엇일까? 국가는 국민 1인당 얼마씩을 지출할까? 정당은 왜 있는 것일까? 국민이 방문하기 전에 경호부대는 무엇을 점검할까? 등등 복잡한 정치 현실을 우화나 동화의 형식을 빌어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정치란 우리 삶으로부터 괴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성찰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오래된 미래》

여성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저자가 인도의 오지인 히말리아 고산지대인 라다크에서 16년 동안 기거하며 그곳의 자연친화적이며 평화롭고 소박한 공동체를 통해 받았던 충격과 감동을 여성학자 특유의 섬세함으로 잘 분석한 책이다. '물질문명과 산업화로 대변되는 서구화가 과연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여러 병리적 현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새 시각을 제공한다.

《권력과 테러-노엄 촘스키와의 대화》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 노엄 촘스키와의 대화를 담은 책. 그는 전쟁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특히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지금까지 전세계와 중동을 상대로 얼마나 부당하게 '권력과 테러'를 초래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기록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촘스키의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지식인의 예리함이 느껴진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촘스키의 일갈은 학생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화두다. **추천**

